

광주 집값 7년간 58.6% 올랐다

2006~2018년 상반기 주택 실거래가 분석 보고서 보니

올 3.3㎡당 평균 매매가 863만원...10년간 457만원 급등
최근 1년간 매매건수 증감률 11.3% 대구 이어 전국 2위

광주지역 부동산 시장이 최근 이상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것과 관련, 지난해 상반기부터 올 상반기 사이 광주지역 주택 매매 거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광주 주택 가격 상승률은 최근 7년간 58.6%에 달하는 등 전국 최고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에서는 주택의 0.1%가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이 될 것으로 추정됐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한국도시연구소가 분석한 '실거래가 분석을 통해 본 주거정책의 과제' 보고서 내용이다.

보고서는 지난 2006년 정부의 실거래가 통계 작성이 시작된 이후 올 상반기까지 1758만여건을 분석한 것으로, 광주·전남을 비롯한 전국의 매매·전월세건수, 매매·전세가 변화 등을 담고있어 지역 주택 시장 흐름 등을 엿볼 수 있다.

◇광주 주택 매매건수 증감률, 전국 최고 수준=지난해 상반기부터 올 상반기 광주 지역 주택 매매 거래 증감률은 11.3%로 대구(31.2%) 다음으로 높았다. 같은 기간 수도권(-12.4%), 전국(-12.1%), 서울(-14.0%), 부산(-35.0%), 울산(-34.3%), 경남(-24.4%) 등이 큰 폭으로 감소한 것과 대조를 이룬다는 점에서 최근 광주지역 주택 시장의 '이상' 분위기를 엿볼 수 있다.

매매 건수만 늘어난 게 아니다. 매매 가격도 올랐다.

광주지역 주택의 호당 평균 매매가는 지난 2006년에 견줘 58.6%가 올라 세종(152.1%), 제주(132.3%), 대구(58.7%) 다음으로 높았다. 수도권 상승률(42.8%)을 웃도는 수치다. 전남도 같은 기간 34.8%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지난해부터 올 상반기만 보면 상승세가

두드러진다. 광주지역 평균 매매가 상승률은 3.4%로, 세종(9.7%), 경기(7.2%)를 제외하면 다른 지역에 비해 확연히 높았다. 서울(2.9%), 부산(2.5%) 보다도 높은 수준이라는 점에서 지역 부동산 시장의 흐름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광주·전남의 전세가 상승률(2011~2018년 상반기)도 각각 96.8%, 99.2%에 달하는 등 전국 평균(56.9%)을 크게 웃돌았다.

◇3.3㎡당 평균 매매가격, 광주863만원·전남 549만원=광주는 3.3㎡당 평균 매매 가격은 2006년 373만원에서 올 상반기 863만원으로 올랐다.

광주의 3.3㎡당 평균 매매가는 2008년 400만원(3.3㎡당 406만원)을 넘어선 뒤 2011년 500만원(3.3㎡당 529만원), 2014년 600만원(3.3㎡당 652만원)대로 올라섰다. 집값 상승세는 이후 더 가팔라졌다.

광주 집값은 2016년 700만원(3.3㎡당 763만원)대로 뛰더니 1년 만인 2017년에는 800만원(3.3㎡당 810만원)대를 돌파했고 올 해 상반기에는 900만원(3.3㎡당 863만원)대를 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광주의 3.3㎡당 매매가의 경우 지난

2006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상승률이 63.0%에 달했고 지난해부터 올 상반기에 만 6.4% 올라 세종(12.9%), 제주(9.5%), 전남(8.7%) 다음으로 높았다.

전남도는 같은 기간, 254만원에서 549만원으로 뛰었다.

3.3㎡당 평균 매매가격의 경우 오래된 아파트를 포함한 가격인데다, 지역별 차이도 크다는 점에서 신규 아파트의 가격은 훨씬 더 높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당장, 광주지역에서는 지역지 2년 된 남구지역 아파트가 3.3㎡당 2200만원이 넘는 가격에 거래되는가 하면, 건축한 지 14년이나 된 아파트의 3.3㎡당 매매가격도 1900만원에 달하는 '조양극화'가 빛지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보고서가 지난 1월부터 7월 사이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공시가격 9억원 초과)을 충족할 가능성이 큰 시세 13억 초과 주택 거래 사례를 분석한 결과, 광주는 전체 거래된 주택(1만8234건)의 0.1%가 중부세 납부 대상으로 분류됐다. 중부세 과세 대상 주택은 92.1%가 서울·경기 등 수도권에 집중됐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 코스피 2228.61 (-25.22) ↓ 금리(국고채 3년) 2.06 (-0.03)
- ↓ 코스닥 747.50 (-19.65) ↑ 환율(USD) 1134.00 (+1.30)

농축산물 가격 유통비가 절반 차지

2016년 44.8%...양파 71%·고구마 69.3% 최저

국내 농축산물 가격에서 유통비가 차지하는 비용이 많아 유통구조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1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 기준 주요 농산물의 유통비용률은 44.8%에 달했다. 전년도 43.8% 대비 1%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같은 기간 축산물 유통비용률은 1.1%포인트 상승한 46.5%였다.

예를 들어 소비자가 1000원짜리 양파를 구입했을 경우 710원이 유통비용이라는 뜻으로, 농가소득은 290원에 그친 셈이다.

또 축산물품질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 2분기 축산물 유통실態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주요 축산물의 유통비용률도 46.5%였다. 이는 전년동기(43.6%) 대비 2.9% 증가한 것으로, 축종별로는 ▲계란 58.9% ▲닭고기 57.1% ▲쇠고기 47.1% ▲돼지고기 41.3% ▲오리고기 34.7% 순이었다.

농수축산물의 소비자가격의 최대 71%를 유통비용이 차지하면서 유통구조 개선에 대한 요구도 제기되고 있다. 출하자→도매시장법인→도매인→소비자로 이어지는 유통단계로 인해 소비자가 가격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중간 유통비용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경매제에 대한 개선도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박완주 의원은 "유통구조가 복잡할수록 생산자의 부담으로 작용하는 만큼 농가소득향상을 위한 유통구조 개선이 시급하다"며 "산지의 규모화와 전문화, 예약거래 및 예약출하 유도 등 생산자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반부패·청렴문화 조성"

캠코, 청렴 경시대회 개최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광주전남지역 본부는 10일 홍창의 본부장과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청렴 경시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청렴 경시대회는 청렴에 대한 경각심을 키우고 반부패·청렴문화 조성을 위한 것으로, 기존의 교육·강의나 결의대회 방식이 아니라 경시대회 형태로 진행해 직원들의 참여와 흥미를 유발하면서 반부패·청렴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도록 했다.

캠코 광주전남지역본부 직원들은 이날 '청탁금지법'을 비롯한 다양한 문제를 풀면서 공사의 반부패·청렴 정책 등에 대해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장흥 수출기업 미국 시장 진출 지원"

중소벤처부-장흥군 간담회...유통망 사업 등 논의

중소벤처기업부 광주전남청(청장 김진형)과 장흥군(군수 정종순)은 10일 한국수출비즈니스클럽 회원사와 함께 미국시장 진출 가속화를 위해 논의하는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진형 청장장과 정종순 군수, 위등 장흥군의회의장, 최동석 KOTRA 광주전남지역본부 단장, 박찬현 중소기업진흥공단 단장 등이 참석해 장흥지역 수출기업의 미국시장 진출전략과 수출 걸림돌 해결을 위해 의견을 모았다.

또 장흥지역 기업 생산제품을 미국 현

지에서 유통하기 위해 미국 내 물류센터 설치와 유통계획 등 구체적인 시장진출 전략에 대해 논의했으며, 대미 수출준비를 위해 KOTRA와 중소기업진흥공단은 해외지사화 사업, 수출성공패키지 사업, 해외유통망 진출지원 사업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김진형 광주·전남청장은 "이번 자리가 전남의 청정 농수산물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발판이 됐으면 한다"며 "지역 기업들의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지역은행 이용 외면"

국회 산자위 김규환 의원

나주 빛가람혁신도시로 이전한 전력 공공기관들의 지역은행인 광주은행 이용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에 소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산업부 산하 지방소재 공공기관 지역은행 이용현황' 자료에 따르면 한국전력공사와 한전KPS는 지역은행인 광주은행을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광주은행을 이용하고 있는 한전KDN과 한국전력거래소 역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급여통장과 퇴직연금, 법인카드 등 전액 이용하지 않았다. 정기에 금 등만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퇴직연금은 금융상품에 속해 수익률이 다른 요소 등을 배제할 수 없어 공공기

관 직원들에게 강요할 수 없으나 급여통장이나 법인카드 등 지역은행을 이용할 수 있음에도 이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규환 의원은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지역은행을 이용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며 "기관의 성격과 직원들 개인의 자유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은행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진도 아리랑 축제

2018 진도문화예술축제

2018. 10. 18. 목 - 21. 일

진도읍 향토문화회관 일원

제1회 진도 수산물 축제

2018. 10. 20. 토 - 21. 일

진도읍 공설운동장 일원

대한민국 민속문화예술특구

보배섬 진도

제 26 회

대한민국 우수지토개 선발대회

2018. 10. 20. 토 - 21. 일

진도군 진도개테마파크 일원